

간행물윤리위원회, 〈10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 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10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 · 발표했다. 선정된 책은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백민석, 문학동네),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레이 황, 권중달, 푸른역사), 《플라톤은 아팠다》(클로드 퀴자드르노, 고재정, 푸른숲),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새무얼 헌팅턴, 소순창 외, 김영사), 《소기업 사장학》(이시노 세이치, 김상헌, 명솔출판), 《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박규태, 책세상), 《이타적 유전자》(매트 리들리, 신좌섭, 사이언스북스), 《나도 타고르고 싶다》(김영숙, 한길아트), 《세상을 보는 눈 1,2》(정호근 외, 이수투데이), 《생각하는 아이를 위한 철학동화》(김해원 글 · 정주현

의 그림, 계림) 등이다. | 669-0772 | www.kpec.or.kr

대학천 청용서점 부도

동대문 대학천에 있는 도매서점인 청용서점(대표 이기영)이 지난 10월 4일 부도를 맞았다. 청용측은 10월 8일 채권단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완전청산에 합의했다. 실사 결과 청용서점은 자산총계 14억 3천 6백여만원, 부채총계 33억 1천 4백여만원으로 자산대비 부채총액이 18억 7천 7백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채권단은 10월 9일부터 창고를 개방해 출판사별로 재고도서를 회수하고 있는데, 10월 11일까지 90% 정도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서련 · 출판협회 공동 집계 |

베스트셀러 종합순위(2001.10.7~10.13)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야
1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진명출판사	비소설
2	한비아의 중국견문록	한비아	푸른숲	비소설
3	The Blue Day Book	브래들리 트레버 그리브	바다출판사	비소설
4	이슬람	이희수 외	청아출판사	비소설
5	바이올렛	신경숙	문학동네	소설
6	등대지기	조창인	밝은세상	소설
7	협상의 법칙	허브 코헨	청년정신	비소설
8	너 그거 아니?	디비딕 닷컴 네티즌	문학세계사	비소설
9	황태자비 납치 사건	김진명	해냄출판사	소설
10	문명의 충돌	새무얼 헌팅턴	김영사	비소설
11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웅진닷컴	비소설
12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1	로버트 기요사키 외	황금가지	비소설
13	거울	원성	이레	비소설
14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안철수	김영사	비소설
15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호리바 마사오	오늘의책	비소설
16	부자국민 일등경제	송병락 외	김영사	비소설
17	위대한 캐츠비	스콧 피츠 제럴드	문예출판사	소설
18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공지영	김영사	비소설
19	삼도1	최인호	여백미디어	소설
20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	신재웅	넥서스	비소설

'제1회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제1회 서울 타이포 잔치 :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24개국 1백여명의 디자이너들이 고전에서 첨단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 세계 각국 각양각색의 문자와 이를 이용한 디자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회는 한글 서체 개발에 앞장서온 안상수씨를 위원장으로, 복디자이너 정병규씨, 미술평론가 성완경씨, 영국의 콜린 밴스, 중국의 에스더 류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본 전시는 포스터, 잡지, 신문 등 편집디자인 전반과 영화타이틀, 뮤직비디오 클립, 광고 등의 방송영상관련 작품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웹 디자인,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미디어 디자인까지 타이포그래피적 요소가 있는 모든 영역의 디자인을 포괄한다.

한편 본 전시에 앞서 10월 15일에 제1회 타이포잔치 국제 디자인 포럼이 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에서 열려 타이포그래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 580-1649 | www.typojanchi.org

대산문화재단, 르 클레지오 초청 강연회 열어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교보문고, 한국불어불문학회와 공동으로 프랑스 누보로망의 대표적 인 작가 장 마리 구스타프 르 클레지오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불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이번 강연회는 '복카치오를 위주로 한 자유에 관한 문제들'이란 주제로 10월 16일 교보빌딩 대강당과 10월 17일 프랑스 문화원에서 각각 열렸다. 초청작가 르 클레지오는 1940년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태어났으며, 1963년 《조서(Le Procès-verbal)》를 발표해 르노도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현재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진정한 작가'이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불어로 작품을 쓰는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 397-3431

영광도서, 제74회 독서토론회 열어

부산 영광도서(대표 김운환)는 오는 10월 24일(수) 오후 6시 30분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제74회 영광독서토론회를 연다. 제4회 요산문학제를 기념한 이번 행사는 《얼굴 없는 전쟁》의 저자 윤정규씨가 발제와 해설을 맡고, 문학평론가 황국명씨

한국러시아문학회, 제7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러시아문학회는 10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려대 한국학관에서 '러시아어문학과 역사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7차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문학분과, 어학분과, 역사문화분과로 나뉘며, 경북대 김경중 교수를 비롯해 12명의 러시아문학 연구자들이 주제발표를 한다. | 3290-1611

규장각, 서울대 개교기념 특별전시회 열어

서울대 규장각(관장 정옥자)은 서울대학교 개교 55주년을 기념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규장각 1층 전시실에서 '예술과 정보의 만남'이란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고지도, 의궤 및 예술 관련 자료 등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꾸며졌다.

이화여대, 제1회 한국문화연구원 콜로키움 개최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원장 진덕규)은 교내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10월 10일 이화여대 인문대교수연구관에서 제1회 한국문화연구원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김영범 연구원과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현선 강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최형익 상임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중앙대 예술대학원, 멀티테라피 그림 전시회 열어

중앙대 예술대학원 멀티테라피학회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공평아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제3회 멀티테라피 자유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중앙대 예술대학원 장성철 교수의 '멀티테라피 신기한 치료그림'들이 함께 전시됐으며, 관람자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료그림 전시실도 마련했다. | www.multitherapy.com

제1회 미당·황순원문학상 시상식 열려

중앙일보사와 문예중앙이 공동 주관하는 2001 제1회 미당·황순원문학상 시상식이 10월 12일 오후 4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렸다. 수상작으로 미당문학상에 정현종의 《견딜 수 없네》, 황순원문학상에 박완서의 《그리움을 위하여》가 각각 선정됐다.

한·일 양국의 문화적 그늘 걷어내온 출판 전도사

제15회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받은 다테노 아키라씨

지난 10월 4일 '책의 날' 기념식장에서 이채로운 인물이 있었다.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일본인 다테노 아키라씨(館野 哲, 65)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한·일 출판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출판계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적절한 시상이라고 반겼다.

다테노씨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데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다. 그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장장 12년 이상 일본의 출판정보지인 《출판뉴스》에 〈해외출판 리포트—한국〉란을 집필하면서 한국의 출판동향을 알려왔다. 또한 시오노 나나미, 마루야마 마사오, 홋타 요시에 등의 저작을 국내 출판계에 소개해왔고, 일본에서 《신한국독본(총10권)》(사회평론사) 등을 비롯한 저작·번역·편집서를 펴내 한국문화 전파자의 역할을 자임해왔다.

다테노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현해탄을 넘나든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오로지 개인적 열정과 신념으로 한일 문화를 잇는 교량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공로는 더욱 빛을 발한다. 동경도청 노동경제국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그는 가외의 시간을 쪼개 한국문화를 연구·분석해온 '한국 마니아'의 전형이었다.

수상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어깨가 무거워진 느낌이다"는 말로 짧게 답했다. 무상으로 그저 좋아서 한 일에 보상을 받게 돼 기쁘기는 하지만 책임감도 더 커졌다는 뜻이다. 그는 1960년대 말 삼중당 도쿄 지사에서 노영환 지사장을 만나 한국 출판계와 인연을 맺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곳에 들려 한국 출판계 소식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한다.

"1960년대만 해도 일본에서는 한국을 알리는 통로가 거의 없었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했다. 속명적으로 뒤떨힐 수밖에 없는 한일 양국이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는 일본에 한국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점을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알리고, 일본과 긴밀하게 연관된 한국 근대사를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한국이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한·일 양국 출판계에 두루 정통한 만큼 한국 출판계에 대한 그의 시각은 날카로웠다. 그는 한국 출판계의 특징으로 역동성·기민성을 꼽았다. "일본 출판계가 새로운 조류나 주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한국은 움직임이 대단히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게 그의 평가다.

"주제넘을지 모르지만 출판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이 눈에 띕니다. 출판의 생명은 확실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질적·양적으로 너무 무겁거나 두꺼운 책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한국인의 지사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테노씨는 한국 출판의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실용서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일본출판이 기획에서 한계현상을 보이는 반면 한국에선 미개척의 분야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가공과정을 거친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내다본다.

그는 자신의 일을 '무상의 즐거움'으로 표현한다. 영리성에 가려진 한일 양국의 문화적 그늘을 걷어내는 일은 자신처럼 사리와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뜻일 게다. 한국에 "꿨을 수 없는 애정"을 느낀다는 그는 앞으로도 일본에 한국의 문화를 깊이 있게 알리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 박천홍 기자

